

# 通度寺 慈藏庵의 건축에 내재된 造營意圖와 美意識에 관한 연구

이권영

(동명정보대학교 건축학부)

서치상

(동명정보대학교 건축학부)

## 1. 머리말

자장암(慈藏庵)은 경남 양산시 하북면 영취산(靈鷲山) 자락의 통도사(通度寺)에 딸린 산내 말사이다. 원래 慈藏이 통도사를 세우기 전에 머물면서 수도하던 곳이라 한다. 오늘의 자장암은 1870년에 회봉(檜峰)이란 승려가 중건했다<sup>1)</sup>고 전해질 뿐 창건시기나 이후 사정은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전하는 말대로라면 통도사가 창건된 643년 이전에 건립되었음이 틀림없다. 자장암의 창건설화가 降魔설화적 성격이고,<sup>2)</sup> 그 직후 왜구의 침탈을 막기 위한 비보사찰(裨補寺刹)로서 통도사가 건립되었기 때문이다.

사찰 중에 창건주(創建主)의 이적(異蹟)을 연기(緣起)로 삼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자장암에도 자장과 금와(金蛙)를 주역으로 하는 설화가 전해진다. 설화란 후대의 가필과 조작으로 무시되지만 그 이면에는 당시의 역사적 리얼리티를 암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오늘에 보는 자장암의 천연지물들은 창건 당시의 사정을 잘 말해 줄 뿐 아니라 후대의 건축구성은 이 설화의 히어로파니

(hierophany, 聖顯)<sup>3)</sup>를 최대한 고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건물들은 지세에 따라 앉혀지고, 천연지물(天然地物)은 이들과 한 몸체로서 공존한다. 인공은 절제되고, 자연에 겸양하므로 간담(簡淡)하고 천연스럽다. 건축적 정체성이나 건물 개별의 완성도는 무시된다. 자장암의 건축구성은 창건설화를 전해주는 천연지물을 최대한으로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러한 조영의도에 따라 미의식이 발휘된 훌륭한 예라 하겠다.

본고는 자장암의 천연지물과 건물들이 엮어내는 독특한 건축구성을 통해서 그 속에 내재된 조영의도와 미의식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조영 주관자가 직접 쓴 현장 기록이 전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시의 조영의도와 미의식을 규명하는 길은 현존 유구를 대상으로 유추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자장암에서는 창건설화와 함께 천연지물들이 변함없이 남아있고, 가람배치나 건축형태도 조선후기의 양상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다. 본고는 조선후기 사찰건축에서 창건설화의 히어로파니를 고양하기 위한 조영의도와 그 속에 내재된 미의식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1 韓國佛敎硏究院, 韓國의 寺刹 4, 通度寺, 一志社, 1974, p.93  
2 운허용하, 불교사전, 흥법원, 1971, p.921.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서 성도하려 할 때 육계 제 6천왕이 악마의 모양으로 위압하고 괴롭히며, 유혹했으나 항복을 받아냈다는 설화와 같다. 이는 降魔라는 八相의 하나로 각색되어 하나의 히어로파니를 갖는 것처럼 재생되고 반복되는 것이다.

3 Mercea Eliade, 宗教形態論, 李恩奉 譯, 蜚雪出版社, 1982, p. 4. 그리스어의 hieros(聖)와 phainein(顯)의 합성어로 '聖을 顯現한다'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로서 모든 종교현상이 이와 관계한다. 종교적 행동이나 의례 등이 초경험적 실재인 聖性を 지향하는 한에서 히어로파니는 종교현상의 가장 단순한 구조이자 역사며 본질이라고 하겠다.

서 의의가 있다.

## 2. 자장암의 창건설화

자장암의 금와변현(金蛙變現) 창건설화는 降魔 설화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通度寺誌』와 『朝鮮佛教通史』에 실린 기록에서 확인된다. 먼저 『통도사지』에는 “자장암 곁 석벽 아래에 자장이 신통력을 이용해서 석장으로 뚫어 만든 작은 샘이 있는데, 석벽 위의 소혈에 있던 개구리 두 마리가 샘물에서 뛰놀며 물을 혼탁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師는 무명지로 석벽에 구멍을 뚫어 개구리들을 이 구멍 속에 살게 하자 물을 흐리지 않게 되었다. 이후로 개구리 한 쌍은 어떤 때는 벌과 나비가 되고 거미가 되는 등 신출귀몰하기 그지없었다. 또한 산내 名山麗水 어느 곳을 가리지 않고 날아다니며, 심지어 師의 밥상에 오르거나 어깨 위에 오르는 등 홀연 나타났다 사라지기 일수였다. 오늘에도 이 개구리를 보지 못하면 믿음이 의심되기도 하고 누가 보는 날이면 믿음을 자랑으로 삼는다.”<sup>4)</sup> 와 같이 자장의 신통과 함께 개산(開山)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불교통사』에는 “개구리 한 쌍의 몸은 청색이고 입이 금색이므로 승려들이 금개구리라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 이 개구리들은 도무지 산문 밖을 나가지 아니하므로, 어느 땐가 관리 한 사람이 그 말을 믿지 않고 개구리들을 잡아 함 속에 넣고 들고 돌아가다가 도중에 열어 보니 없어졌다 했다. 그래서 전하는 말로 그 개구리들은 자장의 신통으로 나타난 것이라 말한다.”<sup>5)</sup>라 해서 이후로는 개구리들이 영물로 취급되는 사정을 설명한다. 이 개구리를 금와보살이라 해서 친견하고 참배한다고 말한다. 보고 못 보는 것으로 신심(信心)을 측량할 정도이니 영물로 상징된 설화의 대상들이 이후로 그 힘을 반복해서 재생해 나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자장이 수도할 당시의 개구리들은 물을 혼탁하게 하는 등 부정적인 존재로서 묘사되다가

금와보살의 위치까지 격상된다. 따라서 원래의 개구리는 저항하는 세력이었으나 자장의 불력(佛力)에 감화되어 귀의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마치 통도사 창건설화에서 가람이 설 자리가 ‘독룡(毒龍)이 독해(毒害)를 뱉는 곳’<sup>6)</sup>이라 해서 부정적인 존재가 전횡을 일삼는다는 내용과 같다. 통도사 세울 터를 잡기 위해 수도하던 곳이 자장암이었으므로 물을 혼탁하게 하는 개구리는 개산에 저항하는 통도사의 독룡과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신통력으로 뚫은 구멍 속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은 불력에 감화를 받아 귀의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금개구리나 독룡의 구체적인 실체는 알 수 없다. 다만 향마설화나 정복설화에서 이러한 존재는 동물로 은유되는 경우가 많다. 가야 건국설화에서 토착세력이 아홉 거북이로 묘사되거나,<sup>7)</sup> 견훤의 모친이 지렁이로 묘사되는 토호와 혼인했다<sup>8)</sup>는 것과 같은 식이다. 따라서 당시 이곳은 불법의 전파나 신라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았던 취약지역이라는 설도 제기된다. 통도사 창건을 즈음해서 백제 군사가 왕경까지 침입해서 여왕의 선견지명으로 물리쳤다는 삼국유사 「善德王知幾三事」의 여근곡(女根谷) 설화<sup>9)</sup>가 전해지고, 동해 감은사와 문무대왕의 수증왕릉<sup>10)</sup> 설화도 왜구의 침탈이 빈번했던 이 지역의 사정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장이 이곳에 가람을 세우게 된 목적은 불력에 의지하여 신라의 지배력을 확립해서 궁극적으로는 불국토의 이념을 구현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산 이름도 원래의 鷲棲山에서 靈鷲山<sup>11)</sup>으로 바꾸고, 통도사와 자장암을 지어 국태민안(國泰民安)을 도모하기 위한 비보사찰<sup>12)</sup>로 삼은 것이 이를 반증한다. 금와현현의 창건설화는 바로 이러한 창건이념을 암시하고, 오늘까지 남아 있는 천연지물들은 이 설화의 히에로파니를

6 『通度寺誌』 「通度寺舍刹梁事蹟略錄」

7 一然, 『三國遺事』 「駕洛國記」

8 一然, 『三國遺事』 「百濟甄萱」

9 一然, 『三國遺事』 「善德王知幾三事」

10 一然, 『三國遺事』 「萬波息館」

11 운허용하, 앞 책, p.599, 불교성지의 하나로 靈鷲山(Grdhrakuta)은 인도 마가다국 왕사성 동북의 기사굴산을 의역한 이름이다. 불타가 설법하던 곳으로 독수리가 많이 서식했던 탓에 靈鷲山으로 불려졌다고 한다.

12 一然, 『三國遺事』 皇龍寺九層塔, 皇龍寺九層塔도 자장이 중국에서 가져온 불사리의 봉안을 통하여 이 땅이 곧 불국토임을 선언하고, 불력으로 九夷를 진압한다는 호국불교 신앙에서 비롯되었다.

4 『通度寺誌』 「金蛙變現」, p. 177, “慈藏庵後石壁下有小泉師錫錫出水石壁上有小穴 二蛙濁水 故師以無名指穿石 出穴入蛙 勿濁清水 自此以後 一雙金蛙 或現蜂蝶 或現蜘蛛 隱現如神飛行自在 名山麗水無所不到 或上飯器 或上肩衣 有忽無忽有 今人疑信難 指於未見之人 若人一見 向人健誇乾於脣涎”

5 『朝鮮佛教通史 下卷』 「僧遺魚及變化金蛙」, p. 278

담고 있는 영물로서 숭배되어 온 것이다.

### 3. 자장암의 건축구성

#### 3-1. 가람배치

자장암의 창건연대나 이후의 조영연혁은 자세히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1870년에 회봉이 증건할 때 관음전(觀音殿)과 세존각(世尊閣), 자장전(慈藏殿), 자장문(慈藏門) 및 요사(寮舍) 등의 일곽이 완성되었으며, 맞은 편 입구 쪽 금와당(金蛙堂)과 요사는 최근에 지어졌다. 따라서 창건설화에 나오는 석간수(石間水)와 암혈(巖穴) 등의 천연지물들과 고려 때의 제작으로 보이는 삼존 마애석불(三尊磨崖石佛)과 어우러진 관음전 일곽은 창건 때부터 형성되었으며 일부를 제외하면 큰 변화 없이 유지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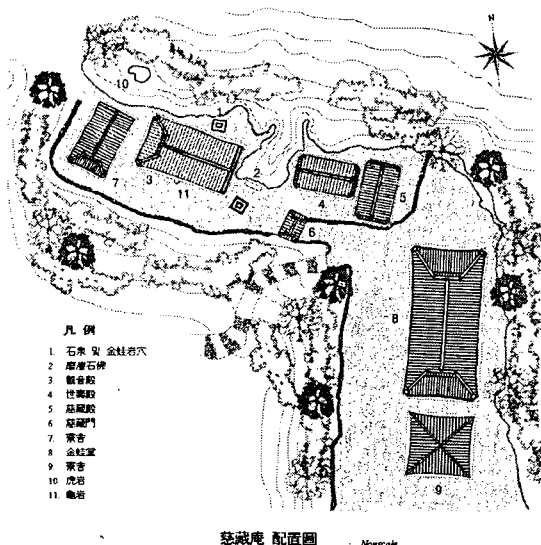


그림 1. 자장암의 가람 배치도

가람배치는 관음전 일곽과 최근에 형성된 금와당 일곽으로 나뉘지며, 전체적으로는 ㄱ 자형을 이룬다. 관음전 일곽에는 전부 5동의 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서향으로 뻗어 내린 산세가 남향으로 꺾여지는 지점에서 암혈석벽과 마애석불이 대지 뒤편에 높게 솟아 있고, 그 아래로 급경사를 이루는 탓에 대지의 깊이는 10미터를 넘지 못한다. 그래서 5동의 건물들은 뒤편 석벽 앞으로 좁게 형성된 대지에 동서 방향으로 앉히고, 그 앞 낭떠러지

에는 담장을 둘러서 팔작지붕의 1칸짜리 자장문으로 통하게 했다. 동서 방향의 길이도 짧기 때문에 관음전과 세존각 두 건물만 남향으로, 그리고 자장전과 요사는 각각 서향과 동향으로 앉혔다. 그러다 보니 산지가람에서 흔히 보는 중심축선상에 주불전을 앉히고 중정 앞에는 보계루 등을, 그리고 주불전 좌우로는 선당이나 승방을 대칭적으로 앉히는 정형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비정형적 배치는 경사가 급한 산록에 남향의 터를 잡은 데서 비롯된다. 관음전 뒤편에는 석간수와 암혈석벽, 그리고 마애석불이 높이 솟아 있어서 그쪽으로는 확장은 불가능하고, 급경사인 우측과 전면으로도 확장이 불가능하다. 최근에 조성된 금와당 일곽도 서향의 산록을 절토해서 전체적으로는 ㄱ자형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건물들은 무엇보다도 창건설화를 전해주는 천연지물들을 보전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앉혀진다. 관음전은 석간수와 금와암혈을 감싸도록 앉히지만 좌측 세존전과 사이에 우뚝 솟은 삼존 마애석불을 침범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 앉혀진다. 마애석불 앞에 3층 석탑이 선 것을 보면 삼존불상을 새긴 마애석불이 옥외에 모신 주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관음전도 세존각도 마애석불을 좌우에서 시립하는 형상이고, 동, 서 양단의 자장전과 요사는 마주보게 함으로써 마애석불과 금와암혈을 그나마 위요하도록 구성된다.

#### 3-2. 건축현황

관음전 일곽의 건물들은 건립된 지 130여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당대의 양식을 대표한다는 지, 고식(古式)의 수법이나 의장이 이례적으로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음전은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에 원주를 세우고 주두 위에서 원형 보뿔목을 받아서 출목 없이 겹쳐마를 받게 했다. 지붕은 서측 단부에는 팔작을 올렸지만 동측 단부는 마애석불을 피해서 맞배로 처리했다. 주간(柱間)에는 각기 격자살 2분합문을 달았는데, 좌측 2칸 짜 주간만은 2배 정도 넓어서 4분합문을 달았다. 초석은 원형 주좌(柱座)형태로 숙석(熟石)한 화강암을 깔았다. 이는 최근 개수 때 교체한 것이며, 건물 아래로 거대한 거북 형상의 바위가 떠받치고 있다. 규모로 보아서 건물 평면면적 보다 더 큰 이 바위를 절개하지 않고 생긴 그대로의 위에 건



그림 2. 관음전 전경(지붕형식이 좌측은 팔작, 우측은 맞배) 물을 얹히다 보니 기단 밖으로 일부가 돌출되고, 특히 실 내부 바닥위로 길고 뾰족한 바위 윗부분이 솟아 있다. 그래서 우물마루를 깔 때 마루장을 그 바위 생김새에 맞춰서 결합시키는 특이한 수법을 볼 수 있다.

수세전(壽世殿)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작은 불전이지만, 관음전에 비해 제법 화려하게 초각한 2익공을 짜서 겹처마의 맞배지붕을 받게 했다. 마애석불과 배면 급경사의 지세에 맞게 꾸미다 보니 정면 주간의 어칸은 격자살 2분합문을 달았으나 좌우 협칸에는 치수가 일정하지 않은 1짝 교살문만 달았다. 수세전 동쪽의 정면 2칸, 측면 1칸의 건물은 특이하게 산령각과 자장전이란 두 불전을 한 건물에 수용하는데, 세수전과 같은 형식의 익공을 짜올렸다. 세수전 주간을 짧게 잡고 지붕도 돌출이 극히 작은 맞배로 처리해서 남은 공간에 이 건물을 남북방향으로 앉혔다.

관음전 우측 대지 끝의 정면 3칸, 측면 2칸 요사채는 무익공으로 온돌을 깔 주거용 건물이다. 산 아래 열려진 쪽에는 팔작을, 뒤편 산록 쪽에는 맞배를 올린 탓에 지붕형상의 균제성이 크게 떨어진다. 건물 좌측이 맞닿는 산록 쪽에 높은 석벽이 가로 막고 있지 않는데도 그 쪽으로 처마 돌출이 큰 팔작지붕을 올리지 않은 것은 좀체 이해하기 힘들다. 다만 전하는 말로 이 건물의 바로 위 산록에 호랑이 생김새의 큰 바위(虎岩)가 있어 그 너머의 터에 건물을 짓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 쪽으로는 팔작이 아니라 맞배지붕을 올리고, 지붕높이도 그 바위 높이 이상으로 올리지 않게 했다고 한다. 이처럼 관음전 기단 아래의 거북형상의 거대한 바위(龜岩) 위에 그대로 건물을 앉히고, 지붕의 좌우를 팔작과 맞배로 서로 다르게 구성하는 등 천연지물들이 가람배치나 건축구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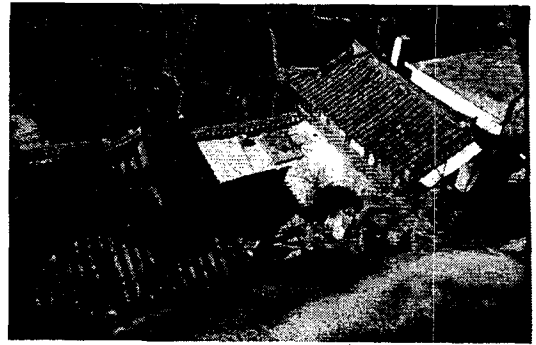


그림 3. 좌측 관음전과 우측 요사(요사의 지붕형식이 팔작과 맞배로 다르다)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점에서 극히 이례적이라 하겠다.

#### 4. 造營意圖와 美意識

##### 4-1. 石物의 神性和 象徵

자장암의 건축구성을 위한 주된 요소는 건물이 아니라 오히려 창건설화에 나오는 천연지물들이다. 암혈석벽과 석간수, 마애석불, 그리고 서북 산록의 호암(虎岩)과 관음전 기단 아래의 구암(龜岩)이 그것이다. 건물들은 이러한 천연지물들을 훼손



그림 4. 관음전 서측 위의 호암

하지 않는 한에서 존재하므로 인공과 작위는 철저히 절제된다. 석물(石物)들은 생긴 그대로 설화이자 히어로파니의 주체인 까닭이다.

석물은 무한 수명을 표상할 뿐 아니라 인공 이전의 시각적 견고함과 물성의 강함을 본래부터 지니고 있다. 그래서 석물들은 쉽게 상징으로 변용되고, 설화적 요소와 결합되면 히어로파니적 상징성을 갖는다. 융(Carl G. Jung)은 이에 대해서 “상징의 역사에서 모든 사물에는 나름의 상징적 의미가 존재함을 가르치고 있다. 돌과 같은 자연물은 물론이고 인공적인 사물과 심지어 추상적인 형태에도 상징의 의미가 깃들여 있다.(중략) 인간에게는 상징을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물건이나 형태를 상징으로 변용하고 종교적으로나 미술로 표현한다. 상징으로 변용시킴으로써 심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중략) 모양을 다듬지 않은 돌까

지도 원시사회에서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고대인들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석을 정신이나 신의 거처로 믿었고 자연석을 묘석이나 경계석, 또는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돌의 역할이 조각의 원시적 양식 가운데 하나로 보아도 좋겠다. 단순한 우연성이나 자연성 이상의 표현력을 부여하려는 최초의 시도였던 셈이다.”<sup>13)</sup>고 말한다.

자장암의 석물들은 철저히 천연 그대로다. 석물도 일단 인공이 가해지면 본유의 원초적 힘을 크게 잃게 되므로 창건설화를 전해주는 한에서 인공은 억제될 수밖에 없다. 엘리야드는 이러한 자연석의 물성에 대해서 “물질의 견고함, 조야함, 항구성은 원시인들의 종교의식에서 히에로파니를 표상한다. 장엄한 바위나 용감하게 우뚝 선 화강암보다 강함의 완전성에 있어서 더 직접적이고 자율적이며, 더 고고하고 장엄한 것은 없다. 무엇보다도 돌은 존재하고 있다. 돌은 항상 무엇에 의존해 있지 않으며, 스스로 존재를 계속한다.”<sup>14)</sup>고 말한다.

석물은 자연 상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물질 가운데서 가장 강한 것 중의 하나이며 수명도 영구적이었던 데서 인공의 유한함과 크게 대조된다. 석물의 물성은 누구의 간섭이나 조각에 의해서 얻어지는 2차적인 것이 아니라 본유적으로 갖는다. 그 크기나 재료의 조야함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힘을 원초적으로 표상하므로 영원성을 상징하기 안성맞춤이다. 그래서 엘리야드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돌이 눈을 치고 있다는 점이다. 치는 자로서의 돌을 느끼기 전에 인간은 돌 앞에서 장애를 발견한다. 그 장애란 육체로 받는 장애가 아니라 최소한 시선의 장애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돌의 견고함, 조야함, 힘을 확인한다. 돌은 인간조건의 불안정성을 초월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제시한다. 즉 절대적인 존재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바위의 저항감, 부동성, 크기, 기괴한 외형 등은 어떤 것도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즉 그들은 매혹하고, 위협을 주고, 끌어당기고, 놀라게 하는 어떤 것의 존재를 가리킨다. 인간은 돌의 크기, 견고함, 형태, 색깔에서 인간이 속하여 있는 세속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에

속하고 있는 실재, 즉 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sup>15)</sup>고 하여 기이한 형상의 석물이 오래 전부터 어떤 신성을 표상하기 위한 방편으로 쉽게 사용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예컨대 남근석이나 여근석과 같이 어떤 형상을 닮거나 압도적인 크기로 인하여 상징화되고 신성의 힘을 얻게 되는 것과 같다.

그런 점에서 자장암의 석물은 신성과 상징의 의미를 여실히 보여준다. 관음전 서쪽 암벽 위의 호암과 기단 아래를 넓게 받히고 있는 구암은 그런 신성의 힘을 얻기에 충분하다. 밑에서 보는 호암은 극히 이례적인 형상과 크기를 갖고 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자연의 무한성에 대한 외경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호암은 가람을 지키는 터주신이자 산신으로 해석되기 십상이다. 가람 서북방에 있는 이 호암을 풍수국면의 우백호로 해석해서인지<sup>16)</sup> 창건 전부터 있었을 이 바위 너머나 위로 건물을 짓거나 지붕을 올리지 않는다고 했다. 관음전 우측 요사를 지을 때도 열려진 쪽으로는 팔작지붕을 올렸지만, 호암을 받치는 석벽쪽으로는 맞배로 처리했다. 형상으로 본다면 불균형의 미완성 같지만 정형성을 깨트리는 한이 있더라도 석물의 신성을 침범하지 않아야 했던 것이다.

관음전 기단 아래에 넓게 펼쳐진 구암은 이러한 조영의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거북 형상의 큰 바위는 그것이 상징하는 거북과 같이 무한한 수명을 갖는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생명체로 인식된 이상에는 객체의 의미를 초월한다. 그렇다고 바위를 피해서 건물을 앉히기엔 뒤편 암혈을 보호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위에 그대로 건물을 앉히고자 한 것이다. 구암은 청정도량(淸淨道場)의 반석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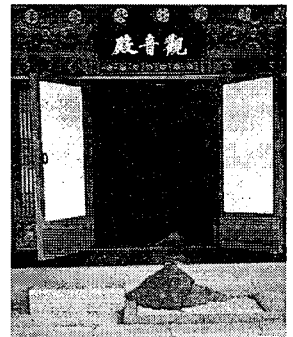


그림 5. 관음전 안팎의 구암

13 Carl G. Jung, Man and Symbols, 이윤기 역, 도서출판 열린책들, 1997, p. 232

14 Mercea Eliade, 앞 책, p.238

15 Mercea Eliade, 앞 책, p.238

16 村山智順, 朝鮮의 風水, 崔吉城 譯, 民音社, 1990, p. 219. 범을 닮은 풍수형국은 길지로 보았다. 특히 白虎는 그 자체가 성국의 좌방을 지키는 四神砂 중 하나였고, 伏虎가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향하여 일어서는 형국에서는 산 기운이 발동해서 땅에 북을 준다고 생각했다.

건물의 성조신(成造神)으로 상징되기 충분하다. 거북 머리와 발 생김새의 돌출부분은 생김 그대로 기단 밖까지 나오게 두고, 거북등처럼 솟은 부분은 편평하게 고르지 않고 생김 그대로 위에 건물을 앉혔다. 당연히 바위 생김새에 맞춰 건물을 앉히다 보니 바위와 만나는 마루 밑 문지방과 동바리, 멩에 등을 그레질해서 맞추고, 마루바닥 위로 50cm 이상 솟은 거북 등 형상에 따라 마루장을 일일이 깎아서 맞춰야 했다. 이러한 치목 일과 입배 공역(入排工役)은 편평한 마루장을 까는 일보다 몇 배나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찮은 인간의 작위로 청정도량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이 일도 감내했을 것이다. 구암이 건물 안팎까지 받치고 있으니 건물이 거북의 등에 앉은 셈이고, 거북이가 건물을 등에 업은 셈이기도 하다.

천연지물들은 관음전 등의 지붕형태나 정면 구간, 창호의 구성에서도 주된 기준으로 작용한다. 예부터 불전에는 팔작지붕을 즐겨 사용했다. 관음



그림 6. 관음전 맞배지붕과 마애석불

전에도 팔작지붕을 올리기로 했지만 왼편 위로 솟아 나온 마애석불 때문에 긴 처마의 팔작지붕을 올리느라 바위를 잘라 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오른쪽으로 건물을 밀치면 아래를 받치는 구암이나 암혈석벽과 틀어진다. 팔작으로 찢다면 처마 밑 공간이 넓어져서 금와암혈로 연결되는 통로가 크게 개방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신성은 세속화되니 그럴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열려진 오른쪽으로는 팔작지붕을, 마애석불과 맞닿은 왼쪽은 맞배지붕으로 처리했다.

이처럼 좌우균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를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한한 인공의 건물이란 무한한 천연지물에 우선할 수 없으며, 더구나 창건설화를 전해주는 암혈과 마애석불의 신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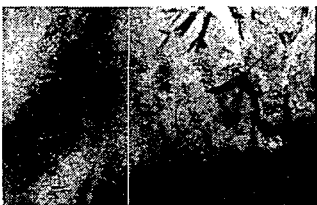


그림 7. 금와암혈(金蛙巖穴)

훼손되어서는 더욱 안될 일이다. 관음전 뒷편으로 사람 하나 들어갈 틈새로 금와암혈로 통할 수 있으니 히에로파니는 더욱 고양되는 것이다. 신심이 돈독한 이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는 금와보살의 믿음이 아무런 의심 없이 전해지는 것도 이러한 건축구성에서 가능하다 하겠다.

#### 4-2. 因과 借의 원리

자장암의 건축구성은 서구적 시각에서 본다면 정제성의 부족과 기하학적 구성의 결여로 완성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평가될 것이다. 자연도 기계처럼 인간의 힘에 의해서 개조되고 정복되어야 할 대상이니 천연지물에 맞춰서 내부공간에 바위가 솟고 지붕의 좌우가 다른 것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장암의 건물들은 살아 있는 영물로 숭배되는 천연지물들과 전일적 관계로 구성되므로 건물과 천연지물간의 대립과 갈등이란 존재할 수 없다. 호암은 건물 높이와 터잡기의 기준이 되고, 구암은 자체가 기단이 되고 마루가 되어 건물과 한 몸이 된다. 마애석불로 인하여 지붕 형태가 결정된다. 그래서 천연지물의 원래 형상을 그대로 두고 건물을 구성하는 점에서 이를 因이라 하겠고, 천연지물을 건물 내부로 끌어 들이는 점에서는 借라 하겠다. 자장암의 건축구성은 이해적이라 할 정도로 인과 차의 원리가 최대한 구사된 예이다.

이러한 인과 차의 개념을 계성(計成)은 잘 설명한 바 있다. “園林은 因借를 교묘하게 잘 이용하고, 體宜를 정교해야 한다. (중략) 因이란 지세의 높낮이에 따르고, 체형의 단정함을 기하여 방해가 되면 나무는 가지를 잘라내고, 물길에 돌을 놓는 등 상호 그 좋은 점을 빌리는 것이다.(중략) 이것이 바로 정교하면서도 合宜한 것이다. 借란 비록 원림은 내외의 구분이 있지만, 경관은 원근을 가리지 않고(중략)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俗된 것을 가리고 좋은 것은 취하여 논밭과 마당을 가리지 않음으로써 연기 속 자옥한 경관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sup>17)</sup>고 하여 인(因)이란 지세와 지형 및 주어진 공간적 여건에 따라 그 특성을 잘 활용하는 것이며 건축은 지세의 좋은 점을 잘 나타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건물의

17 計成, 園治, 김성우. 안대희 역, 도서출판 예경, 1993, p. 43

위치 및 외형이 주위 지세와 합의를 갖는 것을 만들어서 환경 여건과 적절하게 융화되어야만 비로소 체의를 얻는다고 했다. 또 “因과 借는 일정한 법칙이 없이 경물을 보고서 정감이 일어나면 모두 갖추는 것이다. 무릇 借景이란 林園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遠借, 隣借, 仰借, 俯借가 있고, 時에 따라서도 借景이 있다. 그러므로 물정이 머무는 곳에는 시선이 던져지면서 자연히 마음이 기대해지는 것이다. 이는 마치 意在筆線, 즉 마음이 기대해지는 곳에 붓이 움직인다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를 다 그려 넣을 수 있는 것이다.”<sup>18)</sup>고 했다. 차(借)는 곧 경관을 빌리는 것으로 인세(因勢)를 활용하면서 자연 경관을 끌어 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차경이 있고 때에 따라 고려되어야 함을 ‘意在筆線’의 문인화에 비유했다. 많은 집에서 계성의 말은 동양건축 일반의 요체인 인차(因借)의 원리를 잘 설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림 8. 중국 소주의 전형적인 정원(가운데 석회로 만든 기암괴석의 석가산)

그러나 그의 말 중에는 체형의 단정함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나뭇가지 등을 잘라낸다는지 물길을 돌리기 위해서 돌을 놓아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속되고 좋은 것만을 취해서 모두 끌어오고, 그것도 갖가지의 경관을 빌려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 특유의 작위적이고, 적극적인 과장 취향의 인과 차를 느끼게 한다. 그래서인지 중국정원은 산악, 호해, 계곡, 동굴, 폭포 등 자연의 대풍경을 모방한 축도를 조성하는 것이 상례였던 것 같다. 석회로 기암괴석의 석가산(石假山)을 만드는 등 의장에 최대한의 풍요한 변화를 줌으로써 시각적인 포만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인공을 다하는 것이다.<sup>19)</sup> 그가

비유한 의재필선(意在筆線)의 뜻도 문인화에서 공간을 채우는 필과 의의 적극적 호응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자장암에서는 의재필선보다 오히려 의도필부진(意到筆不盡)이 더 적절한 비유인 것 같다. 필선에 자신의 뜻은 실었으나 궁극의 목표는 심의(心意)였으므로 형상에 초연한다. 형상은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억제되고 겸양될 때 한층 높은 차원으로 승화되는 세계이다. 그래서 意到筆不盡의 세계는 意在筆線의 경지를 넘어서 존재한다. 이 세계는 필선을 매개로 해서 심의를 여백에 표현하는 것과 같다. 문인화의 여백은 서양화에서 미처 그리지 않은 여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필선은 여백을 살아 숨쉬게 하는 점에서 존재하므로 여백이야말로 말로 무한 깊이로 심의가 확장되고 살아 숨쉬는 공간이다. 건축에 비유하면 마치 자연이란 큰 화면 위에 건물이란 필선이 그려질 때 여백이란 주변 공간이 살아 숨쉬는 것과 같은 식이다. 의도필부진의 세계는 천연지물과, 인공이 배제된 건물들이 절로 절로된 한에서 가능한 세계이다.

자장암의 건축구성은 인공이 배제된 천연스러움을 그 요체로 한다. 계성의 말처럼 체의를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자르거나 물길에 돌을 놓는 것이 아니다. 건물을 앉히기 위해서 돌이 앉은 자리나 나무의 생김새에 어떤 변화도 가하지 않는다. 관음전과 세수전, 요사 등의 건물은 천연지물을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위치와 건축형태가 구성된다. 건물의 기단 아래로 넓게 앉은 바위는 오히려 기단 석물을 가공해서 그것에 맞춰지고, 내부공간으로 솟은 바위는 원래의 생김새 그대로 빌려 들어온다. 천연지물의 형상 그대로 두고 이를 빌려 온다는 점에서 필선보다 여백을 중시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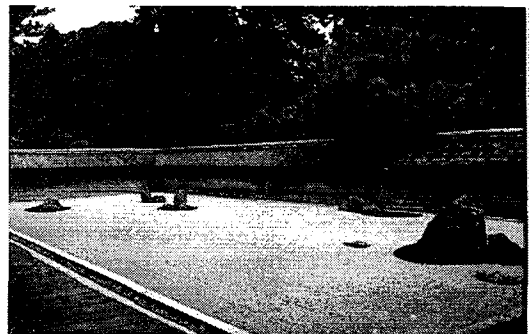


그림 9. 일본의 전형적인 세키타이(石庭)

18 計成, 앞 책, p. 307

19 尹張燮, 韓國建築史, 東明社, 1999, p. 443

의도필부진의 세계인 셈이다.

그래서 여기에 담긴 인과 차의 원리는 중국의 石假山이나 일본의 세키타이(石庭)에서 보는 것과 크게 다르다. 그저 자연의 아름다움을 천연스럽게 두고 보는 데 그쳤지 인위적으로 산형을 만들어서 끌어오거나 고도로 축소된 가공의 자연을 만들지는 않았다. 자연의 인세(因勢)에 맞추고, 천연의 지물을 빌려 오되 인위적 因과 借가 아니라 천연 그대로인 절로절로의 因과 借였다. 李奎報의 「四輪亭記」에서 보듯이 자연 속으로 나아가서 절로절로의 자연이 좋은 것이다. 천연지물과 건물이 때로 因하고, 때로 借되면서 함축되는 전일성이 곧 절로절로된 가람인 것이다.

#### 4-3. 拙과 樸의 理念美

자장암의 건축구성이 천연스러운 것은 인공을 절제하는 점에서 가능하다. 석물들은 원래 형상 그대로 보존되고, 건물들 개별에 대한 인공적인 정제성과 완성도가 크게 결여된다. 이러한 정제성과 완성도의 결여는 건물 개체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집착하지 않으므로 개별적 리얼리티는 무시되고 형사(形似)는 억제된다. 그런 점에서 이는 崔珍源이 조선의 미의식으로서 든 拙(拙)과 樸(樸)의 세계와 통한다. 천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점에서 태고의 樸을 표방하고, 인공을 절제하는 점에서 拙를 미적 이념으로 삼고 있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최진원은 拙과 樸의 미의식을 조선의 지적 엘리트들의 이념적 성향에서 찾았다. 불가(佛家)든 유가(儒家)든 산림에 은거하는 청풍고취(淸風高趣)를 염원했지만 중생제도(衆生濟度)와 경세치민(經世治民)이라는 현실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현실적으로 은둔과 도피가 불가능할수록 관념의 문은 더욱 닫혀지게 마련이다. 이에 高蹈가 형성되고 그 결과는 태고의 樸을 꿈꾸며 그 속에 안주해 버린다. 이 太古의 樸은 무위다. 관념적 공간을 만들고, 그 속에서 역사적 시간을 잊고자 하는 그런 무위다.”<sup>20)</sup>는 말처럼 현자피세(賢者避世)의 무위는 관념으로만 가능했으므로 현실과 완전히 차단된 노장(老莊)의 죽림칠현(竹林七賢)과 달랐다. 현실을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위는 관념적일 수밖에 없다. 관념적 무위로 의구화된 공

간이므로 객관적 사실에 집착하지 않는다. 拙과 樸이 표방하는 비집착의 세계에 안주함으로써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서도 불만을 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태고의 樸은 관념적 무위의 세계이고, 이는 미적 이념인 拙를 통해서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퇴계(退溪)는 벼슬을 놓고 고향으로 돌아 온 후 귀거래의 늦었음을 한탄하며 도산서당을 지어 양졸지처(養拙之處)로 삼았다.<sup>21)</sup> 억불승정 하의 불가는 철저히 이세간적(離世間的)일 수밖에 없었다. 사찰 살림을 맡던 사판승(事判僧)은 예외로 하고라도 암자에 은거해서 三門수행에 전념했던 이판승(理判僧)은 철저하게 세속과 단절했다.<sup>22)</sup> 朴重彬<sup>23)</sup>이 「朝鮮佛教革新論」에서 “조선승려의 실생활을 말하자면 풍진 세상을 벗어나서 산수 좋고 경치 좋은 곳에 청결한 사원을 건축하고 존엄하신 불상을 모시고 사방에 인연 없는 단순한 몸으로 몇 사람의 동지와 송풍나월에 마음을 의지하여 새소리 물소리 자연의 풍악을 사면으로 둘러놓고”<sup>24)</sup>라는 말은 이들의 생활양식을 잘 설명해준다. 태고의 樸을 표방하는 심의의 拙은 이들의 최고 덕목이었다.

예술 세계에서 拙박의 이념미를 최고의 경지로 승화시킨 이는 완당(阮堂)이었다. 그의 “隸書는 書法의 기본이니 만약 書道에 뜻을 두고자 한다면 隸書를 몰라서는 안된다. 隸書法은 반드시 方勁古拙로써 으뜸을 삼으니, 그 拙한 곳은 또 쉽게 얻



그림 10. 완당 김정희의 세한도(歲寒圖)

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漢隸의 묘함은 오로지 拙한 곳에 있으니”<sup>25)</sup> 라는 말처럼 그의 서법(書法)이 추구한 것은 拙이었고, 세한도(歲寒圖)에서

21 李滉, 「退溪集」, 「陶山雜詠并序」

22 金煥泰, 韓國佛教史概說, 經書院, 1988, p. 231

23 圓佛教의 창시자(1891-1943)로 호는 少太山이다.

24 朴重彬, 「朝鮮佛教革新論」, 韓鍾萬 編, 「韓國近代 民衆佛教의 理念과 展開」, 한길사, 1980, p. 122

25 金正喜, 「阮堂集」, 吳世昌 編, 「國譯 楹城書畫叢話」, 시공사, 1998, p. 874



는 이러한 이념미를 여실히 보여준다. 목색필선만의 간담한 소묘에 그려진 네 그루의 松과 柏은 만약 세한도란 표제가 없다면 그것이 무슨 나무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간담(簡淡)하다. 최진원은 이를 “여기서의 감각적 박진성을 억제해 온 문인화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形似억제의 양식화가 여백이다. 목색필선 주위의 여백, 이 여백은 도대체 무엇을 함축하는 것일까. 송백은 곧 孤節을 함축하고, 이것이 그림의 전체성이다. 완당이 말한 심의는 이 전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여백은 단순한 공백의 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개체에 대한 비집착이고 전체성을 함축함이다. 여백에 있어서는 形似是 최대한도로 억제된다. 송과 백, 한 채의 집은 개별성으로서는 표현되어 있지 않고 形似가 전무하다. 그러므로 그 하나 하나는 간담하기 짝이 없고, 그리하여 전체는拙하기만 하다.”<sup>26)</sup>고 했다. 유배지에서 제자 李尙迪의 인품을 날씨가 추워진 뒤 가장 늦게 낙엽지는 송과 백의 지조에 비유해서 그 심의(心意)를 표현한 것이다. 필획의 본령이 사의(寫意)에 있으므로 개체의 표현에 집착할 리 없다.<sup>27)</sup> 완당은 개체에 대한 이러한 비집착을 무혜경(無蹊逕)이라 했다. 서자 商佑에게 쓴 편지에 ‘화법에서 일정한 길과 습기(習氣)를 배제해야 한다’<sup>28)</sup>는 무혜경의 경지는 리얼리티를 초월한 비집착의 세계였다. 이는 완당이 심취했던 선승(禪僧)들의 見山祇是山 見水祇是水라는 깨달음의 세계<sup>29)</sup>와도 통하고, 그래서 즐박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자장암의 건축구성이 천연스러운 것은 태고의 박을 표방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건물들 개별의 형태나 배치까지 완성도를 의심할 정도로 졸하다. 건축구성에 대한 형사나 리얼리티의 표현에 무관심하고 집착하지 않는 대신 창건설화의 히어로파



그림 11. 관음전 내부로 솟은 구암(龜岩)

나라는 심의를 전체성으로 표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불전 좌우의 선당과 승방, 그리고 전방의 보제루 등으로 위요되는 산지가람의 보편적인 배치형상을 따르지 않고 지세가 허용하는 한에서 자리잡는다. 적어도 건축구성의 입장에서서는 정형성이나 비례감, 완성도가 크게 미흡하다 하겠다.

건물 개별로도 정제성이나 완성도는 크게 무시된다. 주불전인 관음전은 공포를 짜지 않은 무익공의 간소한 건물이다. 지붕형식은 좌우가 같지 않고, 바닥에는 거북의 머리와 발, 또는 꼬리 형상이 각각 전후와 배면 석축기단을 뚫고 나오고, 내부마루 위로는 거북등 모양의 바위가 솟아 나왔다. 흔히 정면 칸수가 홀수인 것이 관례로 보면 4칸으로 잡은 것이나 주간(柱間)의 일정한 법칙이 무시되어 있다. 우측 둘째 칸의 주간이 여타 주간보다 2배 정도나 넓다. 그래서 1870년 전까지는 3칸의 정형적 형태였는데, 당시 중건 때 좌측 첫째 칸이 부가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런 대로 정형화된 3칸 집을 굳이 1칸 늘리면서 불가피하게 지붕도 좌우를 다르게 구성했다면, 이는 법당의 면적을 넓히고자 했거나 암혈 석벽으로 통하는 입구를 가급적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이었을 수 밖에 없다.

어떻든 그 결과는 천연지물에 대한 보전이 건물 개체에 대한 완성도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건물 정면의 의장을 좌우하는 입면구성에 대한 일반적인 법칙은 찾을 수 없다. 각 주간의 간격이나 창호의 구성도 일정하지 않다. 주간마다 2분합 격자살문을 달았지만 중앙 어칸에는 4분함으로 처리했다. 좌우로 지붕형상이 다른 것처럼 건물정면도 어칸을 중심으로 좌우칸이 균제되는 형상을 취하고 있지 않다.

26 崔珍源, 韓國의 傳統思想과 文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p. 155

27 이동주, 우리나라의 옛 그림, 학교재, 1995, p. 337

28 金正喜, 『阮堂集』, 吳世昌 편, 앞 책, p. 879

29 高亨坤, 禪의 世界, 운주사, 1995, pp. 23-85, 高亨坤은 靑原惟信의 說法 삼 단계로서, 첫째, 見山是山 見水是水는 깨침 없는 견해로 주객대립에서 허구적 대상을 항구불변의 自性을 갖는 실재로서 믿는 常執을, 둘째, 見山不是山 見水不是水는 禪의 문턱에 들어서 대상을 허구로 보고 斷滅해서 현실까지 허구화해서 無念無爲의 寂滅에 빠진 斷執을, 셋째 見山祇是山 見水祇是水는 禪의 경지로 현실 그대로 여실히 보는 了悟의 상태이다. 현실을 부정 않고 작위없이 단적으로 質直無爲의 직하에 긍정하는 것이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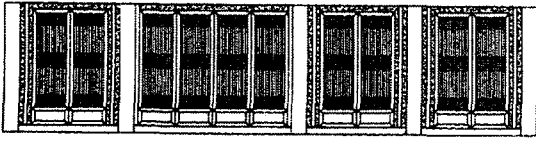


그림 12. 관음전 정면 창호의 비대칭적 구조

수세전은 2익공의 화려한 공포를 짜서 맞배지붕을 올렸지만 박공의 측면들출은 미미하다. 작은 규모에다 마애석불과 자장전 사이의 좁은 대지에서 맞추다 보니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런 대로 어칸이 넓고 좌우 협칸은 같은 작은 치수지만 어칸에는 2분합 격자살문을, 좌우칸에는 1작씩의 교살문만을 달았다. 그러다 보니 주간에 따라 문짝 치수나 형식도 다르고, 1 주간에 이례적으로 한 짝의 문만 달기도 했다.

이와 같이 건물들의 배치에서 평면과 입면의 구성까지 천연지물을 염두에 둔 건축구성으로 개별적인 완성도는 무시되고 있다. 말하자면 문인화에서 말하는 개체에 대한 비집착이요 형사를 억제하는 것과 같은 식이다. 형사가 억제된 탓에 개체의 감각적 박진성을 찾기 힘들다. 건축구성의 목적이 창건설화의 심의를 표현하는 데 있으니 개체의 리얼리티에 초연하는 것은 당연하다. 초연하므로 이는 완당의 무혜경과 같은 세계이다.



그림 13. 마애석불과 맞닿은 수세전

관음전과 수세전, 자장전 등의 건물들은 맞닿아 있는 주변 암벽들과 어우러져 자연의 한 부분인 양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오히려 천연지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할 만큼 태고의 樸을 그대로 보여준다. 건물들이 대지를 누르고 당당히 선 것도 아니요, 주변 천연지물과 우열을 다투듯 긴장하는 자세는 더욱 아니다. 요컨대 건물들은 살아 숨쉬는 청정도량의 전체성을 매개하는 개체

일 뿐이다. 개별적 형사가 억제된 건물들은 간담하고 그래서 건축구성은拙하고 樸한 것이다.

### 5. 맺는 말

자장암(慈藏庵)에 전해지는 금와변현(金蛙變現)의 창건설화는 이 암자가 통도사와 함께 동해 왜구의 침탈을 막기 위한 비보사찰(裨補寺刹)로서 건립되었음을 알게 해준다. 그래서 건축구성도 이러한 창건설화의 히어로파니를 고양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 가람배치는 흔히 산지가람에서 볼 수 있는 좌우대칭의 정형성을 갖추지 못한다. 건물들의 규모나 형태에서 일정한 기준을 찾을 수 없고 건물 개별적으로도 입면구성과 의장적 요소에 대한 완성도가 미흡하다. 이는 부분적으로 급경사의 산록에다 고준하게 솟은 석벽 등으로 불리하게 조성된 대지조건에 기인하지만 창건설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천연지물이 건축구성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건물은 금와암혈(金蛙巖穴)과 석간수(石間水), 마애석불과 구암(龜岩), 호암(虎岩) 등의 석물을 보전하는 한에서 얹혀지고 형태가 결정된다. 금와암혈과 석간수와 같이 창건설화를 전해주거나 마애석불, 그리고 거북이나 호랑이를 닮은 자연석은 그 자체로서 신성을 가진 영물로 상징화되어 배치와 형태구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자장암의 건물들은 이러한 천연지물들과 한데 어우러져서 창건설화의 히어로파니라는 전체성을 함축한다. 이러한 전체성은 因과 借의 원리와 拙樸의 미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건물들은 천연지물(天然地物)의 형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얹혀지고, 형태가 구성되는 점에서 지세에 합의해야 한다는 인의 원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천연지물을 因으로 해서 지붕 형태와 높이를 결정하고 이례적인 칸수와 입면을 구성한다. 건물을 인세(因勢)에 합의(合宜)하도록 하는 점에서 인의 원리가 최대한으로 구사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천연지물이 기단과 한 몸체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부 바닥으로 연장되고 관입하는 점에서 차의 원리를 따른다고 하겠다. 천연지물을 빌리되 천연 그대로의 자연을 건물속으로 끌어들이므로써 하나의 전체성을 함축한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구성에 내재된 미의식은 천연지물을 최대

한 살리는 점에서 태고의 박(樸)을 표명하는 박이라 하겠고, 천연지물을 빌리되 인공을 극도로 자제하는 점에서 심의(心意)의 졸(拙)이라 하겠다. 마치 문인화에서 말하는 개체에 대한 비집착의 형사(形似) 억제와 같이 건축구성에서도 정형성과 비례감, 완성도는 무시된다. 자장암의 건축구성이 간담(簡淡)하고 졸박한 까닭이 여기 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천연스러움을 서구적 잣대로만 분석해서 폄하하기만 한다. 단지 서구적이란 이유만으로 자연정복에 대한 의지를 굽힐 줄 모른다. 그러나 서구에서조차 종래의 기계적 세계관에 수정이 불가피해졌음을 자인하기에 이르렀다. 전통건축의 계승을 화두로 삼는 오늘의 우리에게 자장암의 건축구성에서 보는 전통적 미의식은 반면교사로서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 參考文獻

通度寺誌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一然, 三國遺事

李滉, 退溪集

Mercea Eliade, 宗教形態論, 李恩奉 譯, 螢雪出版社, 1982

Carl G. Jung, Man and Symbols, 이윤기 역, 도서출판 열린책들, 1997

安啓賢, 韓國佛教史研究, 同和出版社, 1982

운허용하, 불교사전, 흥법원, 1971

村山智順, 朝鮮의 風水, 崔吉城 譯, 民音社, 1990

崔珍源, 國文學과 自然,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6

崔珍源, 韓國의 傳統思想과 文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金煥泰, 韓國佛教史概說, 經書院, 1988, p. 231

吳世昌 편, 國譯 槿域書畫徵, 시공사, 1998

高亨坤, 禪의 世界, 운주사, 1995

이동주, 우리나라의 옛 그림, 학교재, 1995

計成, 園冶, 김성우. 안대회 역, 도서출판 예경, 1993

尹張燮, 韓國建築史, 東明社, 1999

# A Study on the Constructional Intention and Aesthetic Consciousness in the Architecture of Tongdosa Jajang-temple

Lee, Kweon Yeong

(Assistant Professor, Tongmyong University)

Seo, Chi Sang

(Assistant Professor, Tongmyong University)

## Abstract

This paper aims at proposing constructional intention and aesthetic consciousness in the architecture of Jajang-temple, which was originally built by the great monk, Jajang in 7c.

The results are as follows :

- 1) The layout and form of buildings in Jajang-temple were remarkably followed the situations and shapes of natural rocks related to Gumwa legend about the original establishment of the temple.
- 2) As natural rocks were penetrated into both the inner and outer space of buildings and so artificial skills were more or less restrained, it seems to be short of geometrical regularity, symmetry and formal integrity.
- 3) However it can be said that these architectural treatments were based on the aesthetic consciousness, so called In-Cha and Jol-Bak, which were conceived by intellectual elites in Chosun dynasty.